



베이징올림픽 D-44



백지란 통신원의 지금 베이징에선

성화봉송 주자 소수민족 다수 배치 '대 중화민족' 이벤트 마다 단결 강조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가장 얻고 싶은 것은 뭘까. 그 속에는 물론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짐작은 할 수 있다. 올림픽 주제를 보면 그게 가능하다.

베이징 올림픽의 주제는 딱 두 구절이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同一個世界, 同一個夢想·One World, One Dream)이다.

결론은 합일(合一)이다. 올림픽을 통해 중국과 세계를 한데 묶자는 얘기가. 그림의 축(竹)의 장막을 걷어낸 지 올해로 딱 30년. 또 하나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이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다. 이제 세계는 중국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선언하는 내용이다.



지난 21일 티베트 라싸 포탈라궁 앞 광장에서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의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발생한 티베트 독립시위는 소수 민족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지진이 드러낸 정부의 부패와 무능은 중국인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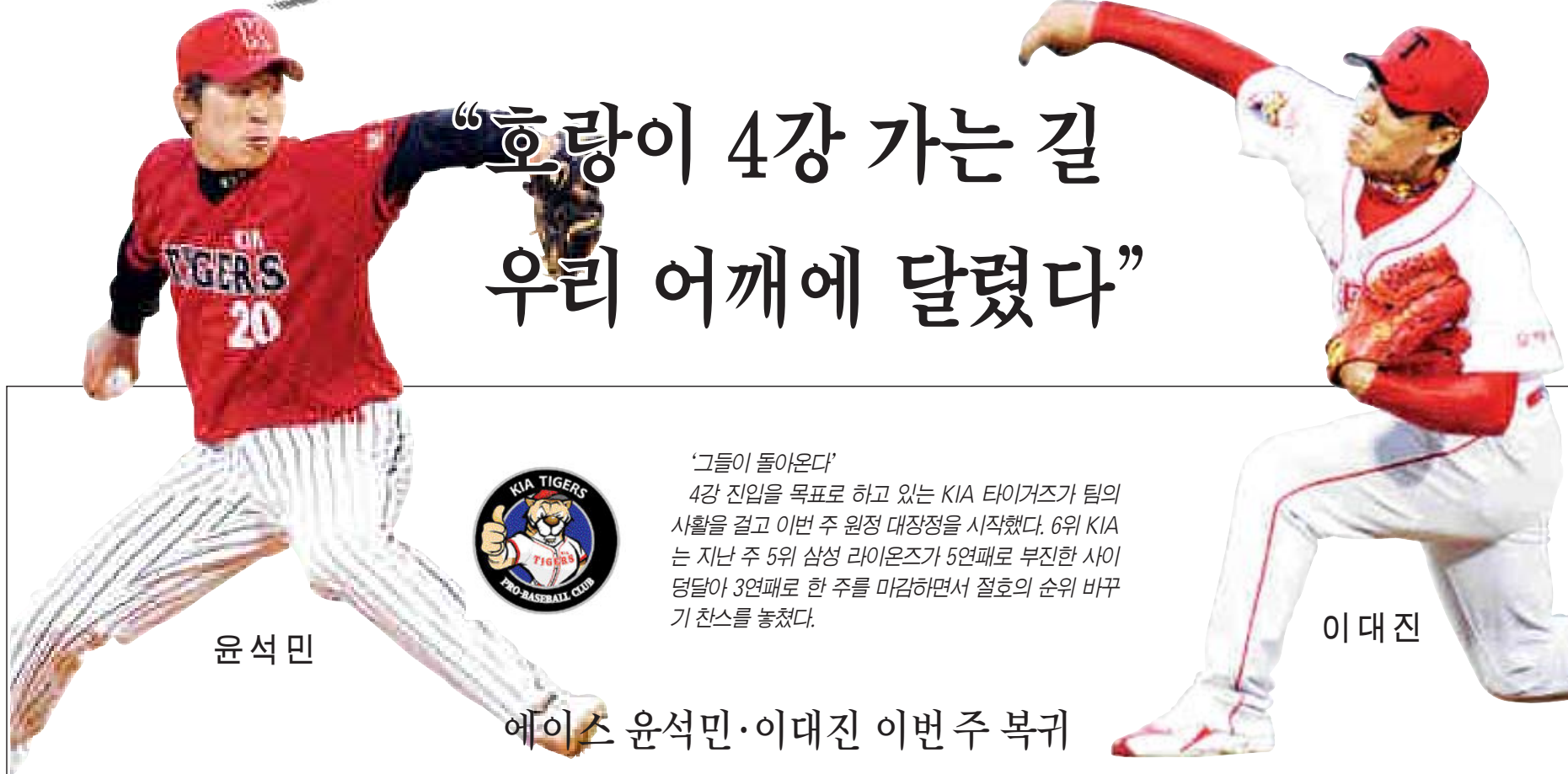
고민하던 중국 정부는 문제 발생지인 티베트에서 전기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지난 21일 티베트 라싸(拉薩). 무기한 중단됐던 성화 봉송이 시작됐다.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지배와 소수민족 간의 단결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였다.

오전 8시 성화 봉송 출발점인 뤼부린가 거리. 달라이 라마가 여류 궁전으로 쓰던 앞뜰은 "중국 힘내라(中國加油)"를 외치는 대학생과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현지 관계자는 "올림픽을 만병통치약으로 만들겠다. 모든 상처와 갈등은 올림픽을 통해 깨끗이 치유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행사장에 나온 한 티베트인은 "올림픽으로 중국은 비로소 하나가 됐다"고 선언했다.

또 있다. 최근 재개된 쓰촨, 간쑤 지역의 성화 봉송은 소수민족 출신 주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성화 관계자는 "최소한 주자의 30%는 소수민족으로 채워졌다"고 전했다. 소수민족 성화주자를 통해 단결을 강조하는 한편, 티베트 등 독립 요구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장악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겠다는 뜻이다.

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는 "앞으로 올림픽 관련 행사에 소수 민족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겠다"며 "55개 소수민족과 한족이 하나로 어울리는 모습은 대중회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krccm@paran.com



“호랑이 4강 가는 길 우리 어깨에 달렸다”

윤석민

이대진

에이스 윤석민·이대진 이번 주 복귀 KIA, 한화·롯데전 승수쌍기 기대

KIA, 한화·롯데전 승수쌍기 기대

23일 현재 4위 한화를 6게임차로 쫓고 있는 KIA의 각오는 비장하다. 남은 경기보다 치른 경기가 더 많은 상황에서의 패배는 뼈아프다.

계다가 4위와 3위에 올라 있는 한화·롯데와의 일전을 필치기 전 만큼 이번 주 승수를 최대한 챙겨야 한다.

4강의 분수령이 될 이번 주 위기의 팀을 구하기 위해 마운드의 쌍두마차가 돌아온다.

지난 14일과 15일 어깨 근육통으로 휴업에 들어갔던 KIA의 신구(新舊) 에이스 윤석민과 이대진이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지난주 KIA는 이범석-디아즈-리마-미

준혁-이범석이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해 에이스가 빠진 빈자리를 지켰다. 윤석민·이대진·서재응의 이탈로 팀 내 에이스로 격상됐던 이범석은 1승 1패를 건졌다.

장맛비를 기다렸던 KIA는 마른 하늘 덕분에 임준혁을 대타로 투입하는 등 부러워라 마운드 실력을 뽐냈지만 2승 3패로 패가 더 많았다.

배격거리는 선발 로테이션에 책임감이 가중된 중간계투진은 과부하로 뒷심부족을 노렸었다.

“그들이 돌아온다” 4강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팀의 사활을 걸고 이번 주 일정 대장정을 시작했다. 6위 KIA는 지난 주 5위 삼성 라이온즈가 5연패로 부진한 사이 덩달아 3연패로 한 주를 마감하면서 절호의 순위 싸움 기회를 놓쳤다.

그만큼 이대진과 윤석민의 합류는 KIA에게는 희소식 중의 희소식이다.

2승 8패, 이대진의 올 시즌 성적표는 초라하지만 목욕탕 자리를 지키며 마운드 승수를 띄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변화무쌍한 커브와 노련미로 4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제 몫을 충분히 해준 이대진은 한화 공력에 나선다.

사상초유의 '무박 2일' 경기 선발이었던 윤석민은 빗속에서 8과 3분의이닝을 소화하며 어깨 근육통으로 재활군에 이름을 올렸다.

잠시 주춤한 야구 김광현(10승)에게 다승 선두자리를 빼긴 김광현(8승)은 사직 구장에 출동해 다승왕 경쟁에 불을 붙이게 된다.

올 시즌 14경기에서 12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장식했던 에이스 윤석민의 복귀는 선발진은 물론 중간 계투진 운용에도 힘을 실어준다.

10월 일 공백이 있었지만 부상이 아닌 단순 근육통으로 인한 공백이었기에 이들에 거는 기대가 높다. KIA의 '필승전략' 두 투수의 승·패에 따라 4강을 노리는 팀의 희·비도 엇갈릴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L 37년만에 투수가 만루홈런

시애틀 에르난데스 진기록

미국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 우완 투수 펠릭스 에르난데스(사진)가 아메리칸리그 투수로는 37년 만에 만루 홈런을 때렸다. 에르난데스는 24일 뉴욕 세이츠필드에서 벌어진 뉴욕 메츠와 인디언 리그 경기에서 0-0이던 2회 2사 만루에 나와 상대 좌완 선발 호안 산타나의 시속 150km짜리 빠른 볼을 밀어쳐 우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그랜드 슬램을 작렬시켰다.



통계회사 엘리어스 스포츠뷰로에 따르면 아메리칸리그에서 투수가 만루 홈런을 때리기는 1971년 5월12일 올랜도 마린스에 대 포틀 터프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스티브 더닝 이후 37년 만이다. 내셔널리그 투수 중 최근 만루포를 쏘아 올린 이는 디트로이트 폰트럴 윌리스로 2006년 7월 작성했다.

희(14:00·KBS N SPORTS)

▲프로야구(KIA: 한화)(18:00·KBS N SPORTS) <SK: 롯데>(18:10·SBS스포츠) <우리: 두산>(18:20·MBC ESPN) <LG: 삼성>(18:20·Xports)

25일(수) ▲제5회 확산 김성률배 전국장사씨름대

광주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27일 열린다

60세이상 5천여명 참가

줄다리기 등 행사 다채

광주시와 광주시생활체육협회(회장 김창준)는 오는 27일 광주시 서구 열 주종합체육관에서 '제3회 광주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축제'를 개최한다.

'활력이 넘치는 즐거운 인생! 건강이 최고!'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년층에게 불거려, 놀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가족간의 화합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축제와 경로스포츠를 위한 대회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펼쳐진다.

지난 2006년 처음으로 개최돼 60세 이상 노년층이 참가, 성황을 이뤘으며 올해는 약 5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희기자 lion@k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수원지구 건물임대 1층 330㎡ 분할가능 2층 340㎡ 170㎡ 소아과/치과/내과/전문클리닉센터

첨단일계공인중개사 급매매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원) 062-226-0047~8

법원경매 전문회사 - 불 앞서는 사람들 - (주)옥션코리아

국민공인중개사